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8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14일 (음력 8월 5일) 금요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광주-전남 '2.2배차'

광주, 전년 비해 8명 줄어든 188명…17개 시·군 중 7번째로 많아

전남, 강원빼고 최저(87명)…"동일해야할 행정서비스 격차 야기"

광주지역 공무원들의 1인당 주민수가 전남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광주지역 공무원 정원은 7766명, 인구는 146만377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88명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244명), 인천(205명), 대전(199명) 등에 이어 7번째로 많다.

전년에 비해서는 1인당 8명 줄었다.

전남의 경우는 인구 189만6424명에 공무원은 2만1727명으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87명에 달했다. 17개 시·도 중 강원(85명)을 빼고는 가장 적은 수치다.

도시행정을 주로 하는 광주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에 비해 2.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국 평균(163명)을 웃돈 반면 전남은 절반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차이가 커 전 국민이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행정서비스 간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등에 있어 정부가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곳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광주 에이스페어 관람하는 어린이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2018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 · Asia Contnt&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에이스 페어는 오는 16일까지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전시된다.

전남도, 건설교통 지역개발 국비 2667억원 확보

지난해보다 1538억 원 늘어나

전남도는 2018년 건설교통 지역개발 분야 중앙 공모사업에서 지난해보다 1538억 원이 늘어난 국비(공기업 포함) 2667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도시재생사업 8곳 2017억 원(공기업 1217억 원 포함), 소규모 재생사업 10곳 17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 3곳 70억 원, 투자 선도지구 나주 빛가람에너지 클러스터사업 100억 원, 공공임대주택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1곳 131억 원, 마을 정비형 사업 2곳 324억 원 등이다.

또 서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사업과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이 용역 사업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중 일부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국비 지원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같은 성과는 민관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지원협의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거나 현장, 발표평가에 대비해 전문가 전략회의, 모의연습 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펼쳐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2019년 SOC 국고 예산과 생활밀착형 SOC 예산 포함 국비 1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모사업도 타 지역과 다른 체계적 전략을 수립해 전남에서 많은 지역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추석맞이' 영호남 화개장터 광주서 열려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경상북도와 14일부터 3일간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영호남이 상생 협력하는 화개장터를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 영호남 문화 대축전과 함께 열리는 화개장터에서는 전남을 비롯해 영호남권 35개 시군에서 63개 업체가 참여한다.

나주 배, 장흥 표고버섯, 완도 미역 등 전남지역 농수산물과 경북, 대구지역의 사과, 곶감, 오미자 등 영호남권을 대표하는 품목을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전남과 경북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비교 전시하는 공동 홍보관도 운영한다.

두 지역의 대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식품명인, 도지사 품질인증, 전통주 등 총 200여 품목을 선보인다. 홍보관 전시 품목은 소외계층의 먹거리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푸드뱅크에 기탁해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키로 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예로부터 전라도는 배를 팔아 경상도 사과를 사먹고, 경상도는 간고등어를 팔아 전라도 굴비를 사먹었다"며 "활발한 문화 교류와 특산품 직거래를 통해 영호남의 대통합과 화합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Photo 漫評

정치보복?

친이계 좌장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7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MB)전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6일 이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 상임고문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계선 부장판사에게 쓴 탄원서에는 "(이전 대통령은)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서 있고, 법정에 세워져 있다"며 "그것 이외 어떤 해석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죄가 되느냐의 여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판단이지만 검찰은 적어도 그들이 제출한 정황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이재오

김경수

임종석